광주시향·코리아챔버…정율성을 기리다

'정율성 음악축제' 클래식 공연 다채

내일 전남대 민주마루 '관현악의 밤'
15일 유·스퀘어문화관 '실내악의 밤'
사전예약 무료관람…사진전도 진행

지휘자 피르스터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지휘자 하이코 마티아스 피르스터,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KCO앙상블 등이 펼치는 클래식 향연이 광주의 가을을 물들인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광주 출신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리는 '2017 정율성 음악축제'의 하나다.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정율성 음악회-관현악의 밤'이,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정율성 음악회-실내악의 밤'이 각각 열린다.

먼저, '정율성 음악회-관현악의 밤'에서는 하이코 마티아스 피르스터(현 체코 야나첵 필하모닉 상임지휘자)가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독일 출신의 지휘자 피르스터는 현재 체코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야나첵필하모닉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이번공연은 한국의 젊은 작곡가 나실인이 만든 '정율성 오페라 망부운 주제에 의한 교향적 환상곡'을 비롯해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사라사테의 '카르멘 환상곡',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등으로 꾸며진다.

이날 협연자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서울대 교수)이 등장할 예정이며 테너 박기훈(서울대 재학)도 출연해 정율성의 가곡 '황학루'와 칠레아의 오페라 아리아 '페데리코의 탄식'을 들려준다.

오는 15일에 열리는 '정율성음악회-실내악의 밤'에서는 실내악단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가 정율성 선생의 음악을 연주한다.

피아노 김고운, 바이올린 윤동환·정원영, 비올라 윤진원, 첼로 김창헌, 더블베이스 강재환 씨 등이 무대에 올라 정율성 가곡 '연안송', 동요 '우리는 행복해요', '평화의 비둘기'를 테마로 한 현악 3~5중주, 피아노 3~5중주로 작곡된 '현악 4중주를 위한 연안송'·'우리는 행복해요'·'평화의 비둘기(김성훈 곡)' 등을 연주한다.

이어 '피아노 4중주를 위한 평화의 비둘기(정재은 곡)', '현악 3중주를 위한 음악 율(律)과 성(成)(석윤복 곡)' 등 다양한 버전의 정율성 가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공연장 로비에서 정율성의 삶과 음악을 느껴볼 수 있는 '정율성 사진 전시회'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관람은 온라인(https : //goo.gl/iycGp2) 접수 혹은 전화(062-670-5743)로 사전예약 가능하다. 문의 062-670-5743.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첼로 진채리·피아노 이성은 '듀오콘서트'

내일 유·스퀘어문화관

진채리

이성은

첼리스트 진채리와 피아니스트 이성은의 듀오콘서트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공연 레퍼토리는 멘델스존의 '무언가 109번', 슈만의 '환상소곡집', 다비드 포퍼의 '스피닝송', 아르보 패트르의 '거울 속의 거울', 브람스의 '첼로를 위한 소나타'다.

진채리는 목포대학교 음악과 졸업 후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이후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원을 졸업했다. 귀국 후 헝가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키에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다. 목포대, 광신대에 출강하고, 연우회, 원음회, 앙상블 사랑과 나눔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이성은은 광주 신광중학교 재학중 오스트리아로 유학, 빈 시립음대 피아노연주과 등을 졸업했고, 오스트라바 국립음대 피아노연주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쥬르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유럽과 한국에서 9회의 독주회를 비롯한 다양한 연주회를 가졌다. 현재 광주음악제, 영호남대음악제 등에서 독주자와 실내악반주자 등으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남과학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전석 1만원. 문의 010-6331-6834. /전은재기자 ej6621@

한 폭에 담긴 남도의 가을·겨울

광주박물관 서화실 개편

소치 허련 '국도'▶

국립광주박물관은 서화실을 '남도의 가을, 겨울'이라는 주제로 개편해 새로운 작품 10건 27점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호남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인 소치허련이 국화와 대나무를 소재로 그린 '국도'와 '묵죽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화순 출신인 염재 송태회의 '팔군자'병풍도 이번 개편에서 처음 공개된다. '팔군자'는 문인화의 주요한 제재인 '사군자'에 길상적 의미의 화훼화가 결합돼 생겨난 독특한 형식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기러기와 갈대를 묘사한 조선 중기 작품인 '노안도' 등도 감상할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가을과 겨울의 계절감이 느껴지는 회화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호남 지역의 다양한 그림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창작국악단 도드리 '스무 살' 맞이 잔치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창작곡 담은 기념 앨범 발표도

㈔창작국악단 도드리〈사진〉가 창단 20주년을 맞아 오는 7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정기음악회를 연다.

도드리는 또 그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은 창작곡을 중심으로 창단 20주년 기념 앨범도 발표했다.

이번 공연은 'Memory회상&Together공존, and Vision미래-20th 도드리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첫째 마당 'Memory회상'은 20년간 꾸준히 관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시집가던날', '낭만', '자유', '이별' 등 13곡을 아름다운 선율로 풀어낸다.

피리 독주부분은 도드리 이사장인 김재섭 지휘자가 직접 '영산강에 부는 바람'을 연주하며 전통 춤사위에는 국악인 임예은씨가 함께 한다.

'강물처럼' '작은 어부', '그 땅 그 하늘' 등으로 구성된 국악가요 메들리도 준비했다.

둘째 마당 'Together공존'은 도드리의 20년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단원들과 도드리와 깊은 인연이 있는 국악인들이 우정출연한다. 전 도드리 단원이었던 김산옥씨, 그리고 루트머지, 바닥프로젝트팀이 출연하여 도드리 20주년을 축하하고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루트머지는 '바람의 노래' '수궁가 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을 선보일 예정이며 바닥프로젝트는 '헤이 미스터'와 '쫓겨났네' 무대를 준비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당 'Vision미래'는 도드리의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04년 위촉한 국악관현악곡 '섬진강', 2017년 위촉한 국악가요 '도드리 연가'와 국악관현악곡 '일월' 등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는 광주영광원 참빛 누리꾼의 태평소 연주자 김진섭, 강완구, 모성환씨와 이은옥 교사가 이끄는 송정초등학교 대취타부가 오프닝공연에 특별출연한다.

김재섭 도드리 이사장은 "지난 20년간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스무 번째 정기 음악회를 펼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단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오늘을 있게 한 만큼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석 초대. 문의 062-266-5889.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제2회 광주화루 공모전' 이달까지 접수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한국화 진흥을 위해 한국화 작가만을 대상으로한 전국 규모의 미술상인 제2회 '광주화루(畵壘)' 한국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개최한 제1회 광주화루는 독특한 심사방식과 국내 최고 수준의 공모전 상금 등으로 한국화 화단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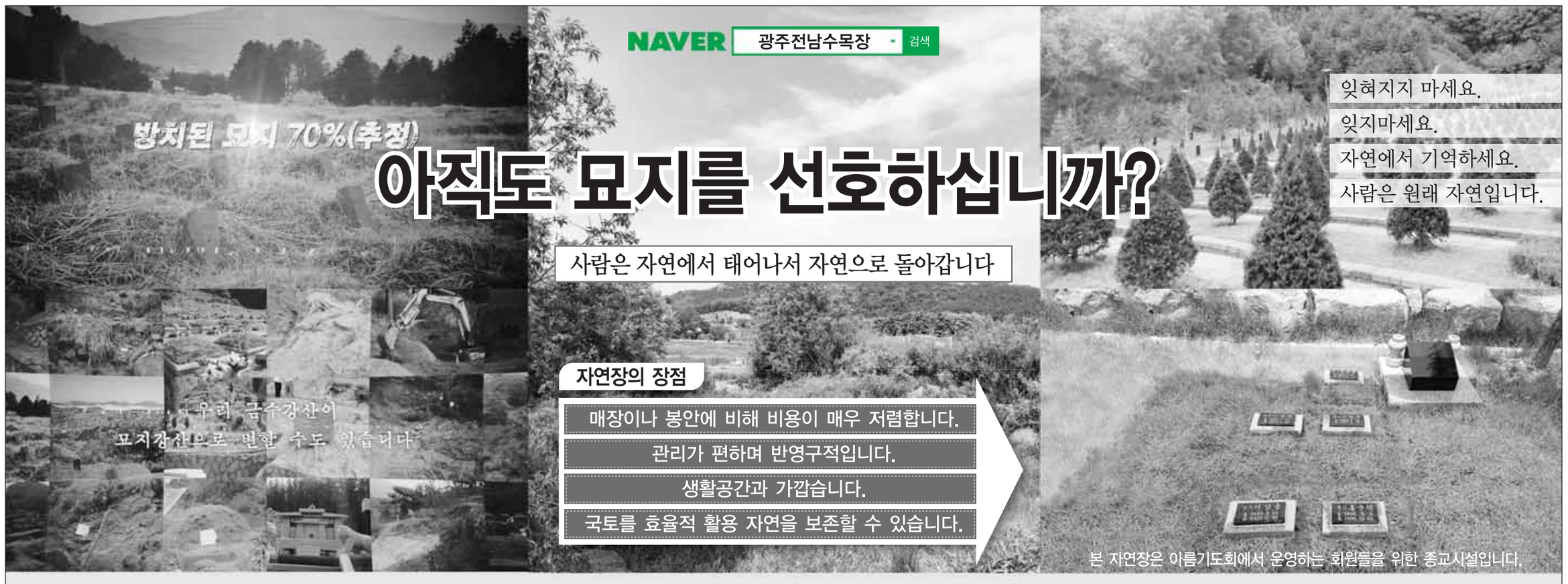
이번 제2회 광주화루 공모전의 1차 서류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광주화루 홈페이지(www.hwaru.kjbank.com)를 통해 접수하며, 이후 3개월간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내년 4월에 당선작을 발표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개인전 지원의 특전이 주어지며, 우수상 1명에게는 200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자를 포함한 최종심사에 오른 작가의 작품들은 내년 4월 전시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제1회 광주화루에서는 작가상 수상자로 유근택씨가 선정되었고, 공모전 대상에는 이호억, 우수상에는 하성흡, 장예슬 작가가 선정됐다. 이와함께 공모전 전시는 지난 4월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작가상 전시는 9월에 서울 성곡미술관에서 각각 개최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2회 광주화루 공모전에서는 더 많은 한국화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상금 규모를 늘렸고, 수상자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며 "유능한 한국화 작가들이 참여하여 한국화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 · 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